

쌀 기증받아 저소득층에 나눠줘

토성면 주민자치위원회 '마르지 않는 사랑의 쌀 단지' 설치

토성면주민자치센터 · 수협 아야진지소에

지역경제 침체 속에서 궁핍한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무료로 쌀을 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토성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일관)는 지난달 말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르지 않는 사랑의 쌀 단지' 2개를 제작, 주민 누구나 쌀을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토성면주민자치센터와 고성수협 아야진지소에 설치된 '마르지 않는 사랑의 쌀 단지'는 주민 및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쌀을 담아 뒀다가,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이 누구든 퍼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탁 받은 쌀은 한끼(3~4인용)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소포장해 단지에 보관해뒀, 쌀을 담은 별도의 장비가 없어도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이선국 토성면장은 "각박해지는 경제상황에서 관(官)이 아닌 민(民)이 스스로 펼치는 이 사업이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온정의 기운을 불러일으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성면 '사랑의 쌀 단지'에 쌀을 기증하고 싶은 개인이나 단체는 토성면주민자치센터(680-3651~3)로 문의하면 된다.

최광호 기자



토성면주민자치센터 입구에 설치된 '마르지 않는 사랑의 쌀 단지' 모습.

간성 사회단체 희망장학금 전달



간성지역 7개 사회단체들이 지난 29일 오전 10시 간성읍사무소 2층 다목적실에서 지역 학생 7명에게 2012년 희망장학금으로 250만원을 전달했다.

참가단체는 간성읍 리장단협의회(회장 어승길), 어천3리 마을회(회장 이종문), 어천3리 부녀회(회장 천성숙), 전문건설협회 고성군협의회(회장 임종성), 지방행정동우회 간성분회(회장 전제동), 간성의용소방대(대표 김동기), 간성여성소방대(대표 장명자) 등이다.

흘2리 라흥수씨 장학금 기탁



지난달 29일 간성을 흘2리에 거주하는 라흥수씨가 고성군청을 방문하여 고성향토장학금으로 1백만원을 기탁했다.

원광연기사의 낱말 맞추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가로열쇠 1. 계약관리, 경리, 징수, 재산관리 등을 담당하는 고성군부서. 남기훈 과장 3. 미인은 불행하거나 병약하여 요절하는 일이 많음 5. 소유했던 000 고친다 7. 컴퓨터 모니터의 화상이 텔레비전의 화상처럼 움직이는 것 10.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12.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15. 이슬람교의 경전 16. 홍콩 영화배우 성룡이 주연한 영화로 술에 취한 척하면서 적을 속이면 싸우는 권법 17.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옮겨 옴 19. 북쪽의 흉노족의 침입을

스 남부에 있는 작은 나라로 공설도박장과 관광지로 유명하다 11. 안에 있거나 고여 있는 물을 밖으로 퍼내거나 다른 곳으로 내보냄 13.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빛을 갠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4. 심청과 심학규가 등장하는 조선후기의 소설 16. 모기가 떴어지는 소리가 뇌성을 이룬다는 뜻으로 소인배가 사실을 왜곡하여 남을 욕함을 이르는 말. 0문0회 18. 3월초가 되면 학교마다 이것이 열리죠 19. 밀가루 따위를 반죽하여 소를 넣어 빚은 음식 21. 노래 부르는 것이 직업인 사람.

*낱말 맞추기 코너는 본지 원광연 기사가 직접 문제를 만들어 출제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넣고 싶은 단어나 내용이 있으면 연락바랍니다.(☎681-1666)

*정답을 적어 <219-803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고성신문사 낱말맞추기 담당자 앞>이나 팩스(☎033-681-1668)로 보내주시면 1명을 추첨해 농협상품권(5천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추첨은 매주 금요일 낮 12시까지 도착한 정답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당첨자는 다음호 신문에 발표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난호(제51호) 정답

●정답자 : 이번호 정답자 없습니다

고	객	봉	사	과		승	부	조	작
장			춘			강		삼	
난	중	일	기		배	기		모	
명		촉			수			사	단
		즉	석	사	진	기			발
오	리	발		상					머
므				의			코	다	리
라	이	거		학			스		
이		문			청	설	모		
스	고	해	성	사			스	캔	들